

제주Utd, 리그 선두권 경쟁 '배수진'

16일 포항과 하나원큐 K리그 22라운드서 격돌 '승점 6점' 2, 3위 대결... "더 벌어지면 안된다" 주민규·제르소 화력에 개막전 패배 설욕 기대

레전드 구자철이 부상에서 복귀한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선두권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배수진을 준비하고 있다. 3위 포항 스틸러스, 2위 전북 현대와 2연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는 오는 16일 오후 8시 포항 스틸야드에서 포항과 하나원큐 K리그1 2022 22라운드에서 맞붙는다. 현재 리그 3, 4위를 달리고 있는 포항(10승 6무 5패)과 제주(9승 6무 6패)는 울산(승점 44)과 전북(승점 39)의 선두다툼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위한 사활을 건 '승점 6

점' 싸리 승부를 펼친다. 이날 경기에서 포항이 승리하게 되면 제주의 입장에서 3위와의 간극이 더 벌어지게 된다. 포항도 이날 제주에 패하면 각각 수원삼성과 성남FC를 상대하는 울산과 전북에 6, 9점으로 승점이 더욱 벌어지게 돼 힘든 추격전이 불가피해지게 된다.

제주는 토트넘과 친선경기를 펼친 팀K리그의 주민규와 제르소의 발끝에 기대를 걸고 있다. 비록 3게임 연속 무득점에 그치고 있는 주민규이지만 제주에선 가장 믿을만한 스트라이커다. 골을 기록하지

못하더라도 도움은 가능한 상황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골과 연결시켜야 하는 방정식을 완성해야 한다. 주민규가 막히면 제르소가 뚫으면 된다. 지난 8일 성남과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지난 2일 서울FC와의 경기에서도 골을 기록한 제르소는 최근들어 제주의 확실한 득점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구자철도 예열을 마치면서 공수 연결고리를 책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수비에 있다. 성남전에서 2골을 비롯 김천에 4골, 서울 2골, 강원 4골, 대구 1골 등 최근 5경기에서 제주는 13골을 허용하며 경기당 2.6골을 내주는 허약한 수비를 드러냈다. 이로 인해 제주는 1승 2무 2패의 전적으로 승점도 5점 밖에 채가지 못했다. 선두 울산을 격침시키는 등 최근 3경기에서 3승을

기록하고 있는 포항의 화력을 막아내기 위해 제주는 다시한번 수비벽을 점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올 시즌 직전 복귀한 '라인 브레이커' 김승대의 역할에 힘입어 상승세를 타고 있는 포항은 내친 김에 울산, 전북 양강의 구도를 깨부수기 위해 제주와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김승대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깨부수고 득점에 기여하는 능력이 뛰어나 '라인 브레이커'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그 명성에 맞게 올 시즌 화려한 복귀를 신고했다. 울산과 성남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올 시즌 개막전에서 포항에게 0-3으로 완패한 제주가 설욕할 수 있을지, 아니며 포항의 연승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상윤기자



한국 남자 농구대표팀이 지난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이스토라 세나안에서 열린 2022 아시아컵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중국에 93-81로 승리했다. 사진은 한국 남자 농구대표팀 허훈의 경기 모습. 연합뉴스

제주 수비수 홍성욱 태극 입대

제주유나이티드는 수비수 홍성욱(사진·19)이 타이 리그 1(태국) 무앙통 유나이티드로 임대된다고 13일 밝혔다.



부경고와 U-17 대표팀에서 간판 수비수로 활약한 홍성욱은 지난해 11월 2019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에도 참가했다. 186cm, 75kg의 탄탄한 체격을 보유한 홍성욱은 헤딩 타점과 대인마크 능력, 경기 리딩이 뛰어나 많은 기대를 모았다.

지난 시즌부터 U-22 출전 카드로 출전 기회를 잡았다. 2021시즌 5경기에 출전한 데 이어 2022시즌 5경기에 출전했다.

홍성욱은 "팀에 많은 보탬을 주지 못해 아쉬웠다. 그래도 내게 많은 성원과 사랑을 보내준 팬들에게 다시 만날 때까지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면서 "제주 구단과 남기일 감독님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조상윤기자

명불허전 '광현중'...전반기 맹활약

김광현, 한미통산 150승·1500탈삼진 달성 양현중, 통산 다승 3위·탈삼진도 2위 도약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에이스 김광현(34·SSG 랜더스)과 양현중(34·KIA 타이거즈)이 이름에 걸맞은 성적으로 전반기를 마감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도전을 마치고 3년 만에 돌아온 김광현과 역시 빅리그를 경험하고 2년 만에 KIA 유니폼을 다시 입은 양현중은 소속팀의 구심점답게 선발 로테이션을 안정적으로 이끈 것은 물론 변함없는 기량으로 승수도 쌓아 '명불허전'임을 입증했다.

김광현은 15경기에 선발 등판해 9승 1패, 평균자책점 1.65의 뛰어난 기록을 올렸다.

평균자책점은 부동의 1위이며 다승은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양현중도 18경기에서 8승 4패, 평균자책점 2.97로 제 몫을 했다.

특히 10승 4패를 올린 괴력의 투

수 폰트와 원 투 펀치를 이룬 김광현과 달리 양현중은 외국인 투수의 조력 없이도 KIA의 1선발로서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선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현중은 12일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의 역투로 팀의 7-1 승리에 앞장서고 최근 4연승을 진두지휘했다.

MLB에서 화려하고 내실 있는 팬 서비스에 감명받은 김광현은 올해 SSG 구단과 협의해 승리를 거둬 때마다 자신의 지갑을 열어 팬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KK 위닝 플랜'으로 새로운 장을 열었다.

양현중은 전반기에 대선배인 이강철 kt wiz 감독을 두 번 넘어 서며 타이거즈 역사를 바꿔냈다.

먼저 6월 11일 키움을 제물로 통산 153승째를 따내 이 감독

(152승)을 밀어내고 통산 다승 순위 3위로 올라섰다. 양현중은 승수를 155승으로 늘려 2위 정민철 한화 이글스 단장(161승)과의 격차를 6승으로 좁혔다. 또 12일 LG와의 경기에서 삼진 3개를 추가해 통산 탈삼진 1752개로 이강철 감독(1751개)을 따돌리고 이 부문 2위로 약진했다.

양현중은 4월 14일에는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역대 7번째이자 최연소로 2000 이닝 투구를 돌파하기도 했다.

양현중보다 KBO리그를 비운 헛수가 1년 많았던 김광현은 5월 14일 NC 다이노스와의 일전에서 역대 6번째로 통산 1500개 탈삼진을 달성했다.

아울러 한미 통산 150승도 이뤘다.

김광현과 양현중은 16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양 팀의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대결한다. 연합뉴스

한국, 첫 판서 중국에 12점 차 승리

아시아컵 조별리그 B조 1차전 93-81 낙승 라건아 25점·허훈 15점·강상재 13점 활약

한국 남자 농구대표팀이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첫 경기에서 '판리장성' 중국을 잡았다.

투입승 감독이 이끄는 남자 농구대표팀은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이스토라세나안에서 열린 2022 아시아컵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중국에 93-81로 승리했다.

올해가 30회째인 아시아컵에서 1969년과 1997년 우승한 적 있는 한국은 4장 이상의 성적을 목표로 내걸고 나선 이번 대회를 기분 좋게 시작했다.

FIBA 랭킹 30위의 한국은 한 계단 위의 중국과 1쿼터를 19-19로 맞선 뒤 2쿼터에도 엇치락뒤치락했다.

허훈(상무)이 저돌적 돌파로 만든 3점 플레이에 힘입어 29-28로 전세를 뒤집은 뒤 허웅(KCC)의 레이업과 허훈의 3점포가 연이어 쏘여 5분 50여 초를 남기고 34-28로 달아났다.

하지만 중국에 연이어 외곽포를

허용하며 다시 접전을 이어갔고, 전반을 43-45로 밀린 채 마쳤다. 후반 들어 수비 집중력을 끌어올린 한국은 라건아(KCC)가 내외곽을 가리지 않고 득점을 뽑아내며 3쿼터 3분 30여 초를 남기고 59-53으로 리드했고, 쿼터를 마무리 지을 땐 65-59로 앞섰다.

4쿼터 초반 강상재(DB)와 송교창(상무)의 연속 득점으로 71-65로 주도권을 놓지않은 한국은 5분 12초 전엔 강상재의 3점포가 폭발하며 76-67을 만들었다.

3분 15초를 남기고는 최준용(SK)의 정확한 패스에 이은 라건아의 골 밑 마무리로 80-69, 두 자릿수 격차로 벌렸다. 84-77이던 종료 45.6초 전엔 허훈의 3점 플레이로 사실상 승리에 쐬기를 박았다.

라건아가 양 팀 최다 25점에 14리바운드로 펄펄 날았고, 허훈이 15점 6어시스트, 강상재가 13점을 보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뉴스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두(재)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해 볼만한 아침 M&W 1부 8:10 해 볼만한 아침 M&W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30 오라차 내 인생(재) 10:00 인강뉴스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황금연두 스페셜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생활속 오늘 아침 8:50 비밀의 집(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이맛에 산다 11:30 반짝이는 프리채널3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5 JIBS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한일월드컵 9:55 SBS 10 뉴스 10: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30 고향이 보인다	8:00 당동당 유치원 9:30 어떻게 만들까 10:00 부모 클래스 13:50 명의 14:45 임미를 찾자마 16:25 한글공서 아리아 17:45 그린조끼 구즈대 18:45 한자로 통하는 삼국지 19:00 몬코트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3:00 KBS네트위크 별다른 13: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4:1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4:30 병과 후 초능력 15:00 브레드 이발소 3 15:15 신비파트 고스트볼Z 퀴드미사 15:45 다이노 파워즈 16:00 사사건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3:00 자본주의 희곡(재) 14:40 풀집 영화가 좋다(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갤럭시 키즈(재) 15:30 TV 유치원 16:00 누가누가 잘하니 17:00 뽀빠족 포크가족 17:15 나니 뭐하니? 17:30 농민 예능 따라잡기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닥터로이(재) 13:4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3:50 2시 뉴스 워진 15:20 뽀빠족 좋아 좋아 스페셜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가요베스트	12:00 SBS 12 뉴스 12:40 왜 오수재인가(재) 14:00 전국 TOP10 가요쇼(재) 15:00 최강 1교시 16:00 꼬리애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재)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뉴스 17:50 아더드 사무루스 2	7:00 KCTV 뉴스 8:30 남민을 고해리 9:30 제주경찰 수사파일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2:30 남민을 고해리 13:10 콘테스트M2 14:30 남민을 고해리 15:20 국악, 세계와 소통하다 16:10 콘테스트M2 17:10 제주산책 18:30 남민을 고해리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한국인의 밤 20:30 오라차 내 인생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주유를 잊은 음식점 2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황금연두 20:30 홍김동전 비긴즈 21:50 정크쇼의 연인 23:00 연중 라이브	18:05 TV매거진 타임라인 19:05 생방송 연극복면 720+ 19:10 비밀의 집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명쾌한 주 22:00 심야괴담회 23:20 도포자라 휘날리며 스페셜	18:20 걸작! 무비월드 스페셜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판타스틱 패밀리 DNA 싱어 22:30 꼬리애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7:00 김탁기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고대 창가에 김석진입니다 12:00 CBS낚초롱뉴스 14:05 송정미의 속속속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민중부
제주CBS FM 95.5MHz 90.9MHz				
7:00 출발! 제주여행진 9:00 스튜디오 1055 12:00 TBN 처차차 16:00 TBN 제주매거진 18:00 달리는 라디오 20:00 탐나는 가요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 MBC 064)740-2432 / JIBS 064)740-7800 / KCTV 064)741-7723 / 제주CBS 064)748-7400 / TBN제주교통신국 064)717-8114				

김종상 지단(組長)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오늘의 운세 14일

36년 노력한 만큼의 즐거움과 이익이 온다. 48년 신중함과 여유를 가져야 손해가 적으니 급할수록 돌아가라. 60년 현재의 일이 힘들다고 변통하는 것보다는 자중함이 좋다. 72년 생각을 조금 바꾼다면 힘든 일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84년 밝은 표정으로 상사를 대하면 좋은 기운이 오고 사랑을 받는다.

42년 부부간에 시댁, 처가 문제 또는 자녀로 인한 격정이 생긴다. 54년 문서이동, 이사, 매매 등에서는 계약이 성사되고 이익이 따른다. 66년 집안에 근심이 오니 안부전화가 필요하다. 78년 취직을 하게 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생긴다. 90년 행복의 시작은 건강에서 온다.

37년 거래나 계약관계로 소식이 찾아온다. 49년 목표가 있으면 추진, 직장인은 변동수가 생긴다. 61년 내가 할 일이 생기고 지시할 일이 있다. 73년 취업, 직장을 받게 된 소식이 있으며, 미혼여성은 결혼 상대자를 만난다. 85년 과감한 결판과 용기가 필요하다. 아르바이트생은 고인이 많아진다.

43년 현재의 일이 힘들다고 변통하는 것보다는 자중함이 좋다. 55년 하는 일에 준비가 필요하니 주변 정리가 우선이다. 67년 애인 또는 친구와의 갈등이 오면 용량이 필요하다. 79년 친구, 동료의 만남이 있으며, 애정에 희소식이 있다. 91년 신용, 약속 또는 돈과 관련된 일로 구설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38년 가정사 문제로 불화 또는 논쟁이 생기니 나서지 말고 중립을 유지. 50년 문서에 관한 소식이 오거나 약속이 정해진다. 계약은 유리. 62년 직장이나 거래처에서의 갑작스런 사안이 발생해 놀라임이 있다. 74년 뜻하지 않은 희식이나 이성교제에 행운이 따른다. 86년 취업이나 진학의 기회가 있다. 최대한 활용하라.

44년 자녀로 인한 근심이 오니 먼저 대화를 할 것. 56년 아사사람 또는 자녀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민이 생긴다. 68년 최선을 다한 일에 결과가 있고, 나를 인정 받게 해준다. 80년 부모나 뒷사람과의 의견차이로 일이 지체되고 스트레스 받는다. 92년 하는 일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건강이 약해질 수 있다.

39년 과거에 진척하면 우울해지고 권태가 온다. 51년 문서 관련 업무는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 63년 계약건은 원활하게 성사되고, 자녀에 관한 소식이 접하게 된다. 75년 새로운 계획(창업)이 있다면 소신껏 추진하라. 87년 자격증에 도전하거나 미래 직업에 반영하는 일을 구상할 것.

45년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력을 다하라. 대인관계를 적극 활용하라. 57년 재물 손실이 있으니 지갑 조심. 69년 얼굴에 손을 댄 일이 있거나 자녀 문제가 생기니 지출보다 저축이 필요하다. 81년 집안에 근심이 오니 부모님께 안부전화나 찾아 보는 것이 좋다. 93년 문서 이동수가 있고 건강이 약해진다.

40년 여유와 차분함이 필요하고 안정할 시기이다. 52년 하는 일이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약속은 보류 된다. 64년 상호협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주 만나 협의하고 논의하라. 76년 모험 또는 시기, 절투가 생기니 잠깐 하는 일은 자제. 88년 새로운 변화나 미취업자는 취업, 직장인이 길하다.

46년 도움에 의한 일자리나 직업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된다. 58년 남의 일에 간섭하다 내가 일을 대신 해주는 형국. 70년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보는 게 좋다. 약속이 생기면 중지하라. 82년 바쁘게 활동하지만 결과의 적다. 94년 시련 속에 열매가 맺으니 기쁨이 증대되고 의욕이 상승한다.

41년 명상이나 마음을 다스리는 하루가 되면 좋다. 53년 직장이나 사업장의 매출 이익과 생산 증대되며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65년 말이 많으면 구설이 오니 언행을 조심하고 상대의 말에 경청이 필요하다. 77년 이동, 변동이 따르고 분주하다. 89년 자존심을 앞세우면 이성교제에 불리.

47년 투자 시에는 신중함과 관찰력이 필요하다. 59년 언쟁이나 불화가 생기니 외출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71년 타인의 배려가 간섭이나 억압으로 느낄 수 있다. 여유와 긍정적 사고가 필요하다. 83년 경솔하게 행동하면 미움을 사게 되니 행동은 조심하게 하라. 95년 시작은 좋으나 마무리에 약하니 잘 마무리 해야 한다.